

2020년 4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강력한 연준 조치 불구 차익 매물 출회

OPEC+ 회의 진행중인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미 증시 변화 요인: 연준 조치, 파월 발언, 유가 변동성, 차익 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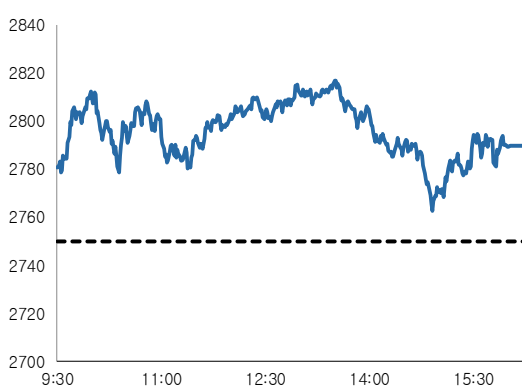
미 증시는 연준의 대규모 부양 정책과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파월도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 되었다고 평가하자 상승.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강세를 이어감. 그러나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고, 고용불안 및 최근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 출회되며 나스닥은 한때 하락 전환. 다만, EU 가 경기 위기 대응에 합의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반등을 보이며 마감(다우 +1.22%, 나스닥 +0.77%, S&P500 +1.45%, 러셀 2000 +4.62%)

연준이 2 조 3 천억 달러 대출 지원을 위한 기구를 발표. 연준은 이를 통해 회사채와 지방채 매입을 본격화 하고 특히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기업들의 채권도 매입한다고 발표. 이는 시장이 기다려 왔던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실채권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이러한 연준의 전례 없는 조치로 금융, 중소형 종목이 주식시장 상승 주도. 하이일드 채권 ETF(HYG, JNK)도 일정 규모 매입 허용 소식에 급등.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강력한 정책을 이어갈 것” 이라고 주장 했으며, 현재는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 더불어 일시적으로 고용 불안이 제기될 수 있으며 2 분기 경제는 매우 약할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면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도 주장. 실제 이날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660 만건을 기록해 최근 3 주 동안 1,680 만 건을 기록해 고용 불안은 현실화. 그러나 연준의 발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됨. 장 초반 OPEC+ 국가들이 하루 1,200 만 배럴, 그 외 국가들이 500 만 배럴 감산에 합의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때 12% 급등. 그러나 감산 방법과 그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지 않자 매물이 출회 되었고 특히 멕시코가 글로벌 감산에 대해 반대를 한다고 발표하자 10% 가까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더불어 감산 시점 기준이 4 월로 할 경우 이미 큰 폭으로 증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산 효과는 크지 않아 과잉공급 이슈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원유시장에 부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1,836.21	+1.61	홍콩항셱	24,300.33	+1.38
KOSDAQ	615.95	+1.41	영국	5,842.66	+2.90
DOW	23,719.37	+1.22	독일	10,564.74	+2.24
NASDAQ	8,153.58	+0.77	프랑스	4,506.85	+1.44
S&P 500	2,789.82	+1.45	스페인	7,070.60	+1.71
상하이종합	2,825.90	+0.37	그리스	607.29	-0.30
일본	19,345.77	-0.04	이탈리아	17,621.62	+1.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급등 Vs. 반도체 업종 하락

JP모건(+8.97%), 웰스파고(+9.64%), 씨티그룹(+7.12%), BOA(+6.01%) 등 금융주는 연준의 회사채, 특히 부실채권 매입 발표에 힘입어 급등 했다. 한편, 이러한 연준의 부실 회사채 매입 발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드스트롬(+12.21%), 콜스(+13.64%) 등의 급등에 영향을 줬다. 더불어 리얼티 인컴(+6.68%), 사이먼 프로퍼티(+8.36%) 등 리츠 금융 회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며, 하이일드 채권 ETF인 HYG(+6.55%), JNK(+6.71%) 등도 급등 했다. 디즈니(+3.39%)는 예상보다 빠르게 스트리밍 고객 5천만명 도달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티지아나 라이프(+56.68%)는 코로나 19 환자를 위한 새로운 연구 기술 개발 소식에 힘입어 급등했다.

한편,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엑손모빌(-1.64%), 셰브론(-1.94%)는 물론 코노코필립스(-2.66%), EOG 리소스(-1.04%) 등 에너지 업종은 하락 전환했다. 마이크론(-4.47%), 인텔(-3.12%), NVIDIA(-1.50%) 등 반도체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2분기 수요 급감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으며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3% 하락했다. 특히 브로드컴(-2.60%), AMAT(-3.63%) 등은 최근 공급망 중단이 발생했다고 발표해 이러한 우려를 자극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8%	대형 가치주 ETF(IVE)	+2.22%
에너지섹터 ETF(OIH)	+0.82%	중형 가치주 ETF(IWS)	+3.74%
소매업체 ETF(XRT)	+3.61%	소형 가치주 ETF(IWN)	+5.66%
금융섹터 ETF(XLF)	+5.36%	대형 성장주 ETF(VUG)	+1.02%
기술섹터 ETF(XLK)	+0.02%	중형 성장주 ETF(IWP)	+1.53%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2%	소형 성장주 ETF(IWO)	+3.89%
인터넷업체 ETF(FDN)	+0.88%	배당주 ETF(DVY)	+3.49%
리츠업체 ETF(XLRE)	+5.15%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2%
주택건설업체 ETF(XHB)	+3.8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5%
바이오섹터 ETF(IBB)	+0.91%	미국 국채 ETF(IEF)	+0.22%
헬스케어 ETF(XLV)	+0.55%	하이일드 ETF(JNK)	+6.71%
곡물 ETF(DBA)	-1.08%	물가연동채 ETF(TIP)	+0.99%
반도체 ETF(SMH)	-2.36%	Long/short ETF(BTAL)	-0.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59.63	-1.08%	+11.73%	+17.11%
소재	323.19	+4.27%	+17.84%	+18.83%
산업재	534.19	+1.43%	+10.55%	+8.97%
경기소비재	856.78	+1.43%	+12.10%	+11.76%
필수소비재	597.14	+0.79%	+5.50%	+11.20%
헬스케어	1,106.01	+0.56%	+8.36%	+12.24%
금융	388.28	+5.19%	+16.46%	+15.33%
IT	1,499.20	+0.02%	+8.77%	+13.65%
커뮤니케이션	158.14	+0.69%	+7.53%	+9.57%
유틸리티	309.35	+4.75%	+13.38%	+12.41%
부동산	220.50	+5.15%	+20.30%	+9.8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OPEC+ 결과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9%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7%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0.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연준이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자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며 마감했다. 특히 금요일 휴장을 앞두고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한때 12% 급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9%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OPEC+ 긴급 회담 결과가 미 증시 마감까지 끝나지 않아 한국 시각 오전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관련 소식에 따라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 증시가 오후 들어 국제유가 급락을 빌미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특히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가 급락하고, 대형 기술주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 점이 특징이었다. 이 또한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반도체 칩 가격 상승이 구매자들이 공급망 붕괴를 걱정하며 재고를 축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2분기에 수요 급감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3%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 재개 시점이 코로나 확진자 정점 기대에도 불구하고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OPEC+ 회담 결과에 따른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지표 급격한 위축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686.7 만건)을 하회한 660.6 만건을 기록했다. 예상(500 만건)을 상회했다. 특히 3 주동안 1,680 만건을 기록하는 등 고용불안이 확산 되었다.

미국 4 월 소비심리지수는 전월(89.1)이나 예상(75.0)을 하회한 71.0 으로 발표되었다. 금융위기 당시 12.7p 급락을 상회하는 전월 대비 18.1p 하락해 소비심리 위축이 가파르게 진행되었다.

3 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감소해 지난달(mom -0.6%)이나 예상(mom -0.3%)를 상회했다.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0.2% 상승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후 9.29% 급락

국제유가는 장 초반 OPEC+ 추가 감산 합의 근접 소식에 힘입어 12%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산 시점에 대해 이미 증산한 현재를 기준으로 삼을지 아니면 3 월 말 시점을 잡을지 논란이 있고, 멕시코의 경우 이번 감산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자 매물이 출회되며 결국 9.29% 급락하며 마감했다. 한편, 금요일에는 G20 에너지 장관 회담이 준비되어 있어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는 연준의 대규모 부양정책 발표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코로나 확진자 정점 기대가 높아지며 달러 수요가 감소했고, 연준의 부양정책 중 부실채권 매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약세 요인이었다. 이는 신흥국 환율의 달러 대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존슨 총리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을 상회한 660 만건을 기록해 3 주 동안 1,680 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발표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은 하락을 제한했다.

금은 연준의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4% 넘게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22.76	-9.29	-10.11	Dollar Index	99.563	-0.56	-0.62
브렌트유	31.48	-4.14	+5.14	EUR/USD	1.0932	+0.68	+0.68
금	1,752.80	+4.07	+7.03	USD/JPY	108.49	-0.31	+0.54
은	16.053	+5.58	+9.55	GBP/USD	1.2456	+0.59	+0.48
알루미늄	1,479.50	+0.96	-0.77	USD/CHF	0.9659	-0.61	-0.83
전기동	5,019.50	+0.34	+2.50	AUD/USD	0.6337	+1.72	+4.55
아연	1,901.00	-1.14	+0.72	USD/CAD	1.3978	-0.25	-1.13
옥수수	336.75	+0.37	-0.52	USD/BRL	5.1051	-0.33	-2.84
밀	557.50	+1.64	+3.48	USD/CNH	7.0588	-0.14	-0.49
대두	871.00	+1.07	+0.81	USD/KRW	1219.50	-0.11	-0.72
커피	119.75	-0.95	-0.79	USD/KRW NDF1M	1210.50	-0.43	-1.30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19	-5.31	+12.21	스페인	0.777	-5.90	+7.40
한국	1.444	-7.00	-7.60	포르투갈	0.898	-7.20	+3.80
일본	0.017	-0.70	+2.40	그리스	1.768	-2.30	-0.20
독일	-0.347	-4.10	+8.60	이탈리아	1.587	-6.20	+12.40